

홍지선 제2차관, 충북 청주 주차로봇 현장점검

- '26.7월 주차로봇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술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 점검
- 홍 차관 “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” 강조

□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HL로보틱스 주차로봇 실증 현장*을 방문하여 주차로봇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.

*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: 주차장 7면 운영 중(24.5~),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효과 모니터링

□ 이번 방문은 오는 '26.7월 주차로봇 제도 시행을 앞두고,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이날 현장에서는 주차로봇 기술을 활용한 차량 주차·출차 시연과 함께,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.

□ 홍 차관은 현장에서 “주차로봇은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주차서비스”라고 평가하며,

○ “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,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“향후 주차로봇 확산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운영관리에 힘써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	책임자	과 장	김종성 (044-201-3797)
		담당자	사무관	류상훈 (044-201-3814)